

# ‘연화정도서관’ 덕진연못에 문 열다

전주시, 옛 덕진공원 연화정 건물 재건축해 한옥도서관으로 조성·한국 아름다움 담은 책 비치

전주덕진공원의 옛 연화정 건물이 전주의 정체성과 한국의 멋을 담은 ‘연화정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2일 덕진공원에 위치한 연화정 건물을 재건축한 연화정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은 전주의 정체성과 한국적 아름다움을 담은 한옥 도서관으로 조성됐다.

연면적 393㎡에 ‘ㄱ’자 형태의 단층 건물에 △도서관 공간인 연화당 △문화공간 및 쉼터 역할을 하는 연화루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연화정 도서관은 한국의 목구조가 나타내는 특징을 담아 ‘집·선·면·그리고·여백’이라는 주제로 총 1852권의 다양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책들이 비치됐다.

‘집(집다)’ 주제 코너에는 전주를 소개하는 도서 및 전주의 아름다움을 담은 문학책을 만날 수 있으며, ‘선(있다)’ 코너에서는 한옥, 한복, 한식, 전통공예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다루는 책들을 볼 수 있다.

또한 △BTS를 필두로 한 K-컬처(신한류)를 다룬 책들과 세계에서 주목받은 우리나라 책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원서들이 있는 ‘면(채우다)’ △



전주시는 2일 덕진공원에 위치한 연화정 건물을 재건축한 연화정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은 가족이 여유롭고 가볍게 읽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적인 그림들을 비치한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정서를 표현한 사진집, 디자인 서적 등 아트북이 있는 ‘여백’ 등 총 5개 코너로 북 큐레이션이 됐다.

연화정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되며, 한국의 미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승수 시장은 “한 도시의 공공의

공간은 그 도시가 추구할 가치와 시민들의 삶을 가장 의미있게 상징한다”면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덕진연못에 문을 여는 ‘연화정 도서관’은 그 아름다움 뿐 아니라 시대를 읽어내고 시대를 끌어가는 책의 도시의 전주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소담스퀘어(소담공간 전주)’ 본격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조성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이 본격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소담공간 전주)’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팔복동(덕진구 서귀로 107)에 문을 연 소담스퀘어는 5개의 스튜디오와 교육장, 라이브방송 관련 장비 등을 갖춘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 교육부터 컨설팅, 마케팅 프로모션 등 라이브커머스 전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라이브 커머스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단기교육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시나리오·상품 세팅·촬영·마케팅 등 분야별로 교육을 선택해서 듣는 즉집게 교육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교육 등 다양한 특화 교육을 준비했다.

또한 소상공인 상품 온라인 지원을 위해 상품 소개 상세페이지를 제작해 다양한 쇼핑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네이버와 그림플랫폼 등에서 라이브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디지털커머스와 라이브방송에 생소한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지회 등 소상공인 단체 시설 견학과 모래내 시장 등 전통시장·상점가 등을 찾아가 시설 안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담스퀘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바이전주 우수상품과 전주농산물 가공식품, 수공예품 등 전주시의 우수한 지역 상품을 연계한 라이브커머스 기획전도 추진키로 했다. 전북경제특성산업진흥원 전북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와도 소상공인 온라인 전환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시는 향후 이 공간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라이브방송 등 온라인 판로를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단체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김봉정 전주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은 “소담스퀘어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성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담스퀘어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지원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가진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www.jca.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414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꽃심,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막

6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서신동 일원서 진행

전문가와 시민이 조성한 다양한 정원을 거닐면서 지역 정원산업의 도약을 이끌 업체들을 만날 수 있는 정원산업박람회가 막을 올렸다. 전주시와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일 전주월드컵광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모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꽃심,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개회식은 조선팝그룹 ‘나니레’의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작가정원 4팀과 시민작가 정원 3팀에 대한 시상, 전시 및 부스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구를 살리는 정원, 정원이 혁신하는 지역”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오는 6일까지 닷새 동안 전주월드컵광장과 서신동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서는 8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정원 소재를 선보일 정원산업전을 비롯해 전문가와 시민작가가 조성한 정원과 전주꽃밭, 전주덧밭, 흠가드닝 등 테마

별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원 토크쇼’, ‘참여업체 주도 특강’ 등 정원과 관련한 강연과 이야기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정원 여행’, ‘초록한잔 심기’ 등 다양한 정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박람회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조선팝 공연과 버스킹 공연은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박람회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는 5일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정원여행’, ‘정원 조성 시연’, ‘탄소중립 교육 및 식물체험’의 일부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예약은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누리집(jgiec.kr)에서 할 수 있으며, 미달 시 전주월드컵광장 행사장 현장예약도 가능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단지 정원 식물을 모아놓은 전시회가 아니라 다양한 정원소재 업체가 참여해 정원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의 삶 속에 정원을 끌어들이는 정원이 주는 기쁨을 전하고, 열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지키기 등을 위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범죄 용의자 검거 ‘일등공신’

관제요원, 수상한 행동 관제 후 경찰에 신고... 경찰과 공조 검거



전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최근 관제요원들이 차량털이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동선 추적 등을 공조한 끝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은 지난 5월 28일 새벽 2시경 CCTV 모니터링을 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인장길공원 부근에서 2명의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일일이 열어보며 차량 문이 열려 있는 차를 찾는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다.

관제요원들은 차량 밖에서 한 명은 주위를 살피고 다른 한 명은 차량 안

을 뒤지고 다니는 것을 확인한 후 절도범이라 판단해 112에 즉시 신고했으며, 용의자들은 CCTV로 범인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출동한 경찰과 공조한 관제요원들의 활약 속에 공원 인근에서 검거됐다.

완산경찰서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지난 31일 해당 관제요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여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안전한 생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링요원 24명(4조 3교대)이 3800여 대의 CCTV를 연중 24시간 실시간 관제하며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역세권, ‘맛집창업 요람’ 거듭난다

시, 6월 말까지 맛집창업교육관 조성 위한 기본구상용역 추진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등 전주역세권 신규택지개발 이후 쇠퇴기에 접어들어 전주역세권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맛집창업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됐다. 전주시는 6월 말까지 청년 외식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주역세권 맛집창업교육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주역세권 맛집창업교육관은 전주역세권 5층에 연면적 1537.32㎡의 건물(덕진구 백제대로 825)에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서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창업 컨

설팅부터 메뉴개발 교육, 예비창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외식산업과 관련한 국가공모사업 대응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같은 건물 내에 대한민국 대표 비빔밥이 그룹인 라스트포원의 연습장과 함께 조성해 전주 첫마중권역의 새로운 명소가 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는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등을 전주역세권에 유입시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외식업체 종사하는 기존 지역민에게는 신메뉴 개발과 업종전환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폐암 진단 AI 솔루션 도입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협회 소속 16개 건강증진의원 이 2일부터 ‘AI 솔루션 정밀폐암 진단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솔루션 정밀폐암 진단 서비스는 흉부CT 영상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폐결절을 자동 탐지해 위치 및 부피 정보를 표기해 영상의학전문의를 진단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정밀폐암 판독의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솔루션이다. 건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

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A바우처 지원사업에 (주)뷰노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 ‘AI 솔루션 도입을 통한 정밀폐암 진단 서비스 제공’이라는 과제로 최종 선정된 바 지난 5월 12일 (주)뷰노와 계약체결을 통해 폐암 진단 AI 솔루션을 전국 16개 지부 건강증진원에 도입하게 됐다. 이번 계약은 완료한 인공지능(AI) 관측보조시스템은 낮은 위양성을 및 높은 검출률을 보여 우수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김윤상 기자

## ‘전주유기동물돌봄봉사단’ 발대식 개최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할 전주시민 봉사단체가 출범했다. 전주시는 2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전주유기동물돌봄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동물복지 영상 시청과 함께 시작됐으며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개회사, 봉사자 대표의 선언문 낭독, 위촉장 수여 순

로 진행됐다. 발대식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임채웅 전주시 동물복지 총괄지원관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 강연도 실시됐다. 전주유기동물돌봄봉사단은 앞으로 △유기동물 발생시 구조·보호·입양 추진 △반려동물 문화 인식개선 및 확산 캠페인 진행 △반려동물돌봄터 운영 지원봉사 참여 등의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